

늦은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6 월말에 미국에 들어와 7 월부터 8 월 초순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선교사 훈련학교 강의, 타코마 동산교회 방문, SWIM 우물 및 정수기 사역 훈련 등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다시 8 월 28-9 월 7 일까지의 몽골 고비사막 쪽의 우물 및 정수기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몽골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덤 인생〉

지난 6 월 11 일 오후 3 시경. 바가노르 감옥소에서 우물 파는 일의 마지막 단계를 마치고 울란바따르를 향해 돌아오던 시골 언덕 내리막 길에서, 제가 타고 있던 추력이 서너 바퀴 공중곡예를 부린 후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잃었던 의식을 되찾은 후 (저는 안전벨트에 매여있는 상태였음) 운전석을 보니 사고 당시 운전했던 김 집사님 (산호세 거주)이 보이지를 않았습니. 직감적으로 안전 벨트를 하지 않은 김 집사님이 바깥으로 튕겨 나간 것이라 생각이 미치자, 황급히 안전벨트를 풀고 집사님을 소리쳐 부르며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 집사님은 몇 명의 몽골 인에 둘러 쌓인 채 누워 있었고, 머리 한 가운데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사님께 의식이 있냐고 물었더니 고개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던 그 지역 경찰서장이 자기 차로 김 집사님을 가까운 보건소로 후송해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어느 몽골 청년의 도움으로 수도인 울란바따르에 있는 연세 친선 병원으로 후송되어 한국인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울란바따르와 다르항 사이를 오가며 보았던 많은 차량 사고들 경우 부상자들이 제 때에 병원으로 후송 받지 못해 (한번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무려 9 시간을 박살 난 차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도운 적도 있었음) 사망하는 것을 여러 번 목도한 바 있기에, 경찰서장과 어느 이름 모를 청년이 사고 현장을 때 맞추어 지나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 맞춰 보내주신 천사들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중보 기도 때문에 살았구나!” “불과 1 시간 전에 바가노르 감옥소 죄수들에게 베푼 세례 때문에 사탄이 저지른 장난이구나!” 두 가지 생각이 마치 놀렸던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 머리 속에서 튀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영화 끝 장면에 주제가와 함께 제작사, 투자자, 감독, 주연 및 조연 배우 등등의 이름이 스크린에 흘러 내리듯, 우리를 여호와와 강한 손에 올려 드려 주시는 기도의 동역 여러분의 얼굴이 떠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의 물밀듯 밀려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김 집사님이 아무 내상 없이 사고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든지, 사고차량 견적을 내는 보험회사

직원이 차를 조사하면서 “이 정도에 살아남은 것은 행운”이라고 한 말이라든지, 제가 약간의 명이 든 것 외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든지, 함께 동행했다면 3 명 중 운전수 옆에 앉았던 자는 치명적인 중상 내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인데 예정에 없던 다른 사역이 만들어짐으로 1 명이 동행에서 제외 됨으로 2 명만 차를 타게 된 것이라든지, 절묘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그 시간 내에 그곳을 통과했던 2 대의 차량 등은 분명 여러분의 드려준 증보기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었습니다. 평소 저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도고가 저희를 살렸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아들 선교는 (몽골에 함께 있다가 6 월 초 미국에 들어와 복학을 준비하며 지금 Target 에서 일하고 있음) 차 사고 나기 바로 전날 내가 타고 달리던 추력이 사고를 일으키는 장면이 너무 선명해 새벽 3 시에 일어나 간절히 기도했다면서 위로의 메일을 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이 병원으로 후송된 뒤 사고현장에 남아 뒷처리를 하는 6 시간 동안 내내 울었습니다. 아파서도, 슬퍼서도, 섭섭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을 펄펄 담아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폐병에서 살려 주셨을 때, 앞으로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며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량사고를 통해 저는 덤이 하나 더해진 ‘덤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보통 바보(덤!)가 아니라 ‘상 바보’입니다. 주님 향한 일편단심의 ‘바보 중의 바보’가 되어 남은 생을 드리겠다고 허허벌판에 홀로 남아 소리쳐 고백하며 눈물을 그렇게 흘렸습니다.

### 〈바가노르 감옥소 우물 사역〉

지난 5 월 31 일부터 6 월 12 일까지 SWIM 선교회에서 4 명의 단기 사역자들이 와서 바가노르 시에 있는 감옥소에 우물을 파는 일과 한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콘크리트 정수기 만드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물사역의 경우 감옥소 안에서 먹고 자면서 죄수 6 명과 함께 3 박 4 일 우물을 팠습니다. 감옥소 측에서 제공한 영빈관(?)에는 샤워시설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감옥소에서 만들어 주는 음식이 너무 빈약해(?) 엄청난 육체노동에도 불구하고 밥 먹는 재미를 못 가진 것에 대해 (팀원들은 오히려 감사 감격하며 하루 하루를 지냈지만) 전체 진행을 책임진 자로서 상당히 송구했습니다.



영빈관

꼬박 3 일간 무려 70 미터를 팠지만 물이 흑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상과, 우물파는 현장에 김밥을 만들어 위로차 찾아오신

어느 선교사님의 “탄광이 많은 바가노르 시는 석탄을 캐기 위해 하도 물을 많이 뽑아내 이제는 지하수가 말라간다. 그래서 밭 농사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형편이다. 아마 물이 없을 것이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호수도 실은 지하에서 올라온 물이 아니라 석탄 캐기 위해 뽑아낸 물이 모인 것일 뿐이다”라는 친절한 격려(?)에 속으로 얼마나 안타게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옥소 영혼들을 위해 몽골에서 지금까지 판 7 개 우물 중 수량에 있어서나 물 맑기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깨끗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560 여명의 죄수들과 60 여명의 간수들이 사용했던 유일한 우물은 지하 18 미터에서 나오는 탁한 물이었기에 감옥소장, 간수들, 죄수들의 기쁨은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솔한 우리 팀들의 언행심사에 처음에는 사진을 찍거나 간수 및 죄수들과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죄수, 간수 가리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정중히 거절하기는 했지만 감옥소장에게까지 예수님을 믿을 것을 강권해도 경정할 만큼,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의 모습에 진한 감동을 그들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물 파는 일을 돕던 죄수들이 결국 모두 주님을 영접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팀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고, 주님을 영접한 죄수들과 함께 먹다 남은 빵과 마시던 물로 나는 성찬식과, 우리가 판 우물물을 길어 세례를 베푼 사건은 제 생애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주의 축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적당한 장소가 없어 추력 뒤 칸에 앉아서 그것도 포도주가 아닌 물과 싸구려 빵으로 거행한 성찬이었지만, 지금까지 참여한 성찬 중 가장 큰 성령의



성찬

임재를 체험했다는 고백을 팀원들로부터 들었고, 붉은 석양 빛과 팀원들의 눈가에 흘러내리는 눈물의 조합은 순백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다르항에서 사역할 때, 해마다 많게는 100 여명 까지 적게도 3-40 명 이상에게 여러 강에서 베푸는 침례에 해마다 참여 했었고, 그 때마다 침례식을 축복하기 위해 20 명, 30 명, 때론 100 여명 이상의 믿음의 식구들이 물가에 서서 찬양으로 함께 동참하곤 했습니다. 그것들과 비교한다면 간수 세 명과 개 2마리 앞에서 주님을 영접한 죄수들에게 베푼 세례식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자신의 영광을 거두시며 한없이 즐거워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이것이 너무 싫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차량사고를 일으켰나 봅니다.



중인들과 기념촬영

몽골 마피아 두목으로 두 명을 살해해 장기 복역 중이던 죄수 한 명은 제게 고맙다며 “혹 누가 당신을 해하려 한다면 내 이름 ‘0000’를 대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라며 선심(?)을 써 주기도 했습니다. 엑스트라 보너스까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운데가 몽골 마피아 두목

〈콘크리트 정수기 제작 사역〉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수기 만드는 사역을 울란바타르 시에서 13 명의 한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결과도 좋았습니다. 이틀이나 걸려야 올 수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대학교의 공대 교수, 몽골 스카우트 지도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교회개척 주도의 한국 선교사들 중 지역개발 전인사역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것으로 이번에 여러 교회개척 목사님들이 참석해 훈련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제작 훈련 후에는 그들끼리 모임을 조직해 앞으로 몽골에 콘크리트 정수기 보급에 앞장 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사역〉

바가노르 감옥소에서 젊은 죄수들 16 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감옥소측과 약속한 대로 충실한 두 명의 여 선생님들에게 의해 매 주 1회 6개월 간 가르치고 지금은 방학 중입니다. 9 월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가르쳤던 선생 한 분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저 역시 앞으로 미국에서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 동안 기도와 재정으로 이 사역을 뉴욕의 ‘기쁜우리교회’가 도와주셨는데, 교사 확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쁜 우리교회 안 목사님과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학생 최수철/2명 선생/여 간주/임 목사)

### 〈기타 사역들〉

물론 매월 한 번씩 영어예배에서 설교하고, MIU 국제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새롭게 울란바따르에 개척된 현지인 교회 지도자를 옆에서 돕고, 우리 집을 찾아온 내몽골 교회 지도자들의 자문 역할을 한 것도 다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한인 선교사들과의 폭 넓은 교제와 특히 몇 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직·간접으로 코칭 하면서 한국교회 선교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미국 단체에서만 선교 사역을 했던 저로서는 참으로 꼭 필요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저를 몽골로 다시 불러 들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훈련원장 직〉

지난 3월 요청을 받은 이후 “나는 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줄기차게 했지만, 결국 지난 주 최종적으로 캐나다 밴쿠버에 세워진 선교훈련원장 직을 수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긴 말 줄이면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 땅값만 5백만 불이 넘는 바닷가에 위치한 건물을 4백만 불에 구입하는 기적을 통해 당신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북미의 한인 선교 단체들 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선교 단체들이 소속 선교사들을 보내 훈련을 받게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동참을 자원해 왔고, 이사장으로는 서울 사랑의 교회 오 정현 목사님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훈련에는 1.5 세 2 세 선교사 3 가정을 포함한 20 여 선교사 가족들이 참여했는데 초교파적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2 세들이 오히려 미국단체의 훈련보다 한국과 미국의 강점을 살린 이런 훈련에 더 호응을 보인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의 출현이었습니다. 더욱 무거워진 제 어깨를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 〈두 날개 선교회 조직〉

8월 5일 제가 속해 있는 <SWIM 선교회>와 <RECON MINISTRY 선교회>가 합병하면서 제가 대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속해있는 SWIM 선교회는 지역사회 계발에 주력하는 단체인 반면에 RM 선교회는 현지교회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육성하는 사역만 하는 단체입니다. 창공을 날기 위해 새는 반드시 두 날개가 있어야만 하듯, 성경이 제시한 올바른 선교를 위해서 역시 사역의 두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커뮤니티 계발 사역이요, 다른 하나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제자훈련입니다. 이것을 줄여 저는 평소 Discipleship & Development 를 통한 전인사역(Wholistic Ministry and Life)라고 요약해 강의하곤 했으며 저의 선교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세워질 단체의 이름을 ‘Two Wings, International’로 작명했습니다. 솔직히 선교훈련원장 일이나 선교단체 대표 일 중 그 어느 하나 가벼운 사역이 아니기에 인간적으로는 결정이 다 되어버린 지금도 피하고 싶지만 합니다. 지금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간절한 부탁〉

이제 여러분과 저희 부부와의 동역이 내·외몽골이라는 한 지역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함께 품어야 하는 자리에 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부부의 뛰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내·외몽골 사역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은 더 더욱, 실망스러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선교지와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하는 일에 지속적인 동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도 우리 부부를 보면 선교현장 체질(?)이라고 들 말할 정도로 선교지는 그 어느 곳이든지 저희 부부에게는 고향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선교지의 땅 냄새를 맡고 사람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평안해 집니다. 최근에 큰 아들 허드슨이 “아빠가 왜 몽골에 와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면 아빠 엄마는 이곳보다 더 힘들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으로 가야 오히려 재미있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만큼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 부부에게는 희생입니다. 반면에

앞으로 제가 인도할 새로운 선교단체와 선교훈련원은  
진액을 짜야만 가능한 일들이고, 실은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요하는 일들이기에 어찌 보면 저의 결정은 고생  
길이 훤히 보이는 결정입니다.

오늘 아침 창 19 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엮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엮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중보 기도의 능치  
못함이 없는 엄청난 압도 당했습니다. 몽골을 향해  
아낌없이 중보의 손을 들어주신 여러분을 생각하사 차량  
전복사고에서 저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일하신 그 분께 저와 저희 가족을 아뢰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주님 은총을 빕니다.

임 준호, 박 정자 올림